

CeBIT 2005 한국관 중소기업 눈부신 성과 거둬

상담액 12억 5천만 달러,
계약액 2억 5천만 달러 초과

본회(회장 윤종용)와 KOTRA가 공동 주관한 「CeBIT 2005」한국공동관에 참가한 95개 중소기업들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IT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10일부터 7일간 "Get the spirit of tomorrow"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 최

대의 정보통신박람회인 독일 하노버 「CeBIT 2005」에서 한국관 참가업체 95개 중소기업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여 IT강국의 면모를 확인시켰으며 상담성과도 뛰어나 잠정 집계한 실적에 따르면, 총 수출상담액은 12억 5천만 달러, 계약금액은 2억 5천만 달러를 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전년도에 비해 규모면에서 참가기업수가 1.2배 늘었을 뿐 아니라 (2004년 81 개사 → 2005년 95개사) 한국관 내방객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 (2004년 7만명 → 2005년 8만명) 하였으며, 둘째,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경쟁국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 등 경쟁력 있는 첨단제품을 다수 출시한 데에 기인한다. 또한, 유럽지역의 현지무역관을 통한 효율적 한국관 홍보, 바이어 발굴 및 초청 등 전시회에 대비한 사전 마케팅, 현장 바이어 미팅 알선을 통한 상담효과를 극대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찾은 내방객은 약 8만명으로 실질



바이어만 약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상담 및 계약실적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동유럽과 북유럽 바이어들 과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 등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바이어들도 대거 내방하여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한국관의 위치는 22번, 23번, 25번홀에 구분되어 배치되었는데 이는 참가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홀별로 지정된 주요 전시품목의 특성에 맞게 바이어들이 내방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한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 메인 홀인 26번홀에 인접되어 바이어의 접근성을 용이케 하였다. 참가업체가 대규모인 대만관과 중국관도 13개홀에 걸쳐 분산 배치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업체로는, LCD-TV 전문업체인 (주)디보스(사장 심봉천)로 7일간의 전시회 동안 8,000만 달러의 수주 성과를 거두어 대기업에 비해 약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회사의 해외마케팅을 지휘하고 있는 하홍규 부사장은 이번 CeBIT 성과를 바탕으로 "LCD TV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 제일이 되겠다." 는 각오를 보였다.

세계 최초로 팬 없는 파워 및 컴퓨터 케이스와 조용한 CPU/VGA 쿨러를 개발한 잘만테크(주)는 연일 몰려오는 바이어를 상담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바이어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의 주목을 끌어 독일의 3대 국영TV중 하나인 WDR TV와 NBC Europe 에서 부스를 방문하여 촬영과 인터뷰를 한 후에 이를 보도하였다. 이 회사의 이영필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약 3,000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적인 고품질/고가(high-end)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세계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굳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CeBIT에 55" LCD-TV등을 출품하여 4,000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기록한 (주)텍트론의 오충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TV시장이 빠른 속도로 LCD 및 PDP TV로 변동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품질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형 사이즈에 승부를 걸겠다.” 라는 경영전략을 밝혔다.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인 DVD-Combo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주)씨에스이는 EU 지역의 바이어로부터 상당한 주문을 기록하였다. 독일의 전문 가전업체인 Schneider사, 스페인의 MX-ONDA사, 네덜란드 PHILCAR 사 등과 체결한 5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재구매를 서둘 예정이며 디지털 컨버전스를 채용한 신제품을 조만간 개발 완료하여 세계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이 회사 남태호 상무는 밝혔다.

이러한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위해 KOTRA와 본회(KEA)는 내년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올해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로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A

